

톤 인 톤 배색과 톤 온 톤 배색의 감성 평가

The sensibility evaluation of Tone in Tone combination and Tone on Tone combination

김지혜*†

Ji-Hye Kim*†

K&A 색채연구소*

K&A Color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e sensibility effects of color combinations was studied utilizing tone on tone combination and tone in tone combination. A total of 24 color combinations were rated by 10 college students using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Excel statistics program 2004. Analysis method was 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Color combinations utilizing tone on tone and color combinations utilizing tone in tone was evaluated a very different impression. Thus these were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 sensibility effects of color combinations. In comparison with appearance of color combination using colored paper and that of product to apply to color combination using colored paper, it was showed to be evaluated mostly similar impression. However By characteristic with product, shape, size and texture, appearance of color combination is likely to be evaluated very difference impressi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ill serve as a basis of color combination image or color design.

Keywords : Sensibility effects of color combinations, Tone in Tone combination, Tone on Tone combination,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요 약

본 연구는 톤 인 톤 배색과 톤 온 톤 배색을 활용한 배색의 감성 효과에 관한 것이다. 톤 인 톤 배색 과 톤 온 톤 배색에 근거하여 제작한 24개 배색에 대하여 Osgood의 SD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이용하여 10명 대학생에게 배색에 대한 인상 평가를 받았으며 자료 분석은 엑셀 통계 프로그램 2004를 사용하여 요 인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톤 인 톤 배색에 근거한 배색과 톤 온 톤 배색에 근거한 배색의 인상이 매우 다 르게 평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색채조화의 형식으로 제안되는 배색 기법이 배색의 감성 효과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좋다-싫다’, ‘어린이답다-어른답다’, ‘강하다-약하다’, ‘따뜻하다-차갑다’ 4개 이미지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에는 색상과 색조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제품의 사진배색과 거의 동일한 색종이 배색의 인상을 비교한 것으로 색표를 이용한 배색과 그 배 색에 근거한 제품의 배색 인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품이 가진 고유 특성이나 형태, 재질 등에 의해 인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배색 이미지나 색채 디자 인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주제어 : 배색의 감성효과, 톤 인 톤 배색, 톤 온 톤 배색, SD법

† 교신저자 : 김지혜 (K&A 색채연구소)
E-mail : 2006-4-21@hanmail.net
TEL : 070-7723-0252

1. 서론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색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직접 세워 본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색은 약 17만색 전후로 추계된다고 한다(福田邦夫, 1985). 하지만 우리가 각각 다른 색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별개의 색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색이라는 것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유한의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색채의 세계로부터 적당하게 복수의 색을 선정하여 맞추면 상당한 다수의 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색을 맞춘·조합한 결과인 ‘배색’은 조합하는 색과 그 수에 의하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상을 만들어 낸다. 단색 및 배색에 대한 광범위한 감성적, 정서적 반응을 보다 엄밀하며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오스 굿(Osgood, C. E. and Suci, G.J., 1957)이 고안한 SD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이 사용되고 있다. Kobayashi(1981)는 Hue&Tone System과 SD법 등을 사용하여 단색 그리고 배색의 인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심리적, 실용적, 조직적인 컬러 이미지 스케일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미지를 색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와 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이미지로 분류하였으며 배색의 이미지는 색상과 톤에 의한 다른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伊藤 久美子(2004)는 동일색상내의 이색(二色)배색 연구에서 색상이 배색의 평가에 크게 관여하는 척도는 sporty-elegance, 도회적·시골풍, gorgeous-simple이며 색조가 배색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두운-밝은, 화려-수수, 조화-부조화의 척도라고 하였다. 伊藤 久美子, 大山 正(2005)는 이색상(異色相)간 색의 이색배색의 감성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색채 감정의 평가치가 상위에 위치하는 배색의 특징을 색상과 색조의 측면으로 나타냈다.

다년간의 색채 배색에 관련된 작업과 교육을 통하여 배색을 통한 이미지의 작업 시 배색 방법으로 제안되는 배색형식이나 배색기법이 색채조화의 원리가 아닌 위에 소개한 연구 결과의 색상과 색조처럼 배색의 감성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로써 이해하여 활용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배색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배색의 인상이나 색채조화에 관한 특징을 밝히려는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배색형식이나 기법 그 자체가 어떠한 인상의 특성을 가졌는지, 배색의 감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앞에 소개한 선행 연구(伊藤 久美子 2004, 伊藤 久美子와 大山 2005)를 포함하여 단지 특정 배색 기법이나 형식을 근거로 배색하여 배색 인상을 평가한 선행연구가 있다. 성남숙, 최수경(2009)은 동일색조를 근거로 색상을 조합한 배색의 실험에서 색상과 색조의 영향이 현시성 차원에서 두드러진 단서로 평가되었다. 임지영(2007)은 톤 인 톤 배색기법을 근거로 한 배색에서는 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강경자, 정복남, 정수진(2005)은 톤 온 톤 배색은 색상과 색조의 영향이 작용하며 명도차가 큰 색조의 배색이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강경자와 최수경(2005)은 톤 온 톤 배색이 5가지 이미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톤 인 톤 배색은 3가지 이미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미지 연출에는 톤 인 톤 보다 톤 온 톤 배색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 배색기법 모두 색상, 색조의 조합에 의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자료를 통하여 배색 형식이나 기법이 배색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색채조화의 형식 중 대표적인 배색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톤 온 톤 배색과 톤 인 톤 배색에 근거한 배색의 감성 평가를 통하여 복수의 색을 조합 시 고려되는 배색 기법이 배색의 감성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 및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색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톤 온 톤 배색은 ‘톤을 겹치다’라는 의미로 색상을 통일시켜 톤에 변화(명도 차)를 주는 동계색상의 농담배색이다. 톤 인 톤 배색은 톤으로 통일하여 색상에 변화를 준 배색기법이다(流行色 No.377).

표 1. 통일과 변화의 배색조화(流行色 No.377)

배색 이름	통일 요소	변화 요소
Tone on Tone	색상	Tone
Tone in Tone	Tone	색상

* 통일요소의 색상 : 동일, 인접, 유사 범위

* 통일요소의 Tone: 동일, 유사 범위

이처럼 통일과 변화의 원리를 통해 조화를 추구하는 배색기법 중 다른 성격을 가진 톤 인 톤 배색과 톤 온 톤 배색기법에 근거한 배색에 대한 인상평가를 통하여 배색기법의 다름에 따라 배색의 인상에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 지에 관하여 검토 및 확인해 보고자 한다.

둘째, 색표를 이용한 배색의 인상과 그 배색에 기초한 제품의 배색인상이 어떠한 지에 관한 실험을 위해 잡지로부터 선택한 제품의 사진 배색과 거의 동등한 색표 배색의 인상을 비교하여 이러한 두 조건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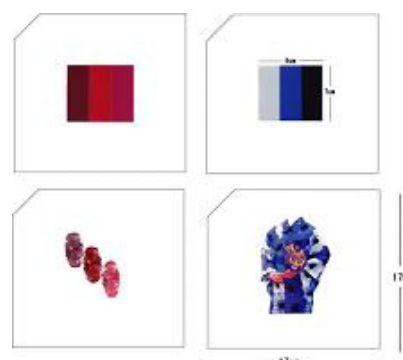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2.1. 실험 방법

2.1.1. 자극물 제작

배색의 감성효과 평가에 관여하는 요인은 배색 수, 배색의 면적 비, 크기, 배치, 형태, 재질 등이 있으며 복잡하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색은 전달하고자 하는 배색의 이미지가 애매하지 않도록 삼색배색으로 하였다. 제품 사진의 배색은 색채를 비교적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패션 잡지로부터 옷과 생활 용품 등의 사진을 선정 후 표 1의 통일과 변화의 배색조화와 PCCS하모니 컬러 차트에서 색상 차와 색조 차의 분류를 기준으로 톤 인 톤 배색과 톤 온 톤 배색 기법에 준하여 71조의 배색을 만들었다. 제품의 사진으로 배색을 해야 되는 관계로 두 배색기법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견본을 많이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에서 톤 인 톤 배색과 톤 온 톤 배색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배색 12개를 선정하였다. 색표 배색은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ion)의 신배색 카드199b를 이용하여 최종선

정한 12개의 제품 사진의 배색과 거의 동등한 색종이를 선택하여 조합했다(표 2). 12개의 톤 온 톤에 근거한 배색(색종이 배색 6개, 사진 배색 6개)과 12개의 톤 인 톤에 기초한 배색(색종이 배색 6개, 사진 배색 6개) 총 24개 배색에 대한 배색견본을 작성했다. 배색견본은 가로 17cm×세로17cm, 두께 1mm의 하양 종이 위에 가로 6cm×세로 7cm 정도 크기의 배색샘플 붙여 작성했다(그림 1).



톤 인 톤 배색 톤 온 톤 배색
그림 1. 배색견본 예

2.1.2. 의미 척도 선정

배색의 인상평가를 위해서 SD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이용했다. SD법은 5단계 평가를 사용하며 평정 항목 선정에 대해 척도에 대한 기본적인 실험은 행하지 않고 배색조화의 연구에 관한 논문으로부터 배색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때 사용빈도가 높은 척도와 서적(千千岩英彰, 2001)에서 ‘색채의 감정기술에

표 2. 총 24개의 배색시료

No.	종류	No.	종류	배 색 기 법	색 의 조 합		
1	사진 배색	7	색종이배색	Tone on Tone	(p)pink	(b)pink	(dp) red
2	사진 배색	8	색종이배색	Tone on Tone	(ltg)pink	(sf)purple	(dk)purple
3	사진 배색	9	색종이배색	Tone on Tone	(p)violet	(v)blue	(dk)grayish blue
4	사진 배색	10	색종이배색	Tone on Tone	(p)greenish blue	(lt)greenish blue	(v)blue
5	사진 배색	11	색종이배색	Tone on Tone	(ltg)yellow green	(sf)green	(dk)blue green
6	사진 배색	12	색종이배색	Tone on Tone	(ltg)grayish yellow	(dk)yellowish brown	(dkg)grayish brown
13	사진 배색	19	색종이배색	Tone in Tone	(ltg)beige gray	(p)blue	(p)purplish pink
14	사진 배색	20	색종이배색	Tone in Tone	(p)yellow green	(p)beige	(p)yellowish white
15	사진 배색	21	색종이배색	Tone in Tone	(sf)yellow green	(lt)blue	(lt)violet
16	사진 배색	22	색종이배색	Tone in Tone	(dk)brown	(dk)blue	(dk)grayish olive
17	사진 배색	23	색종이배색	Tone in Tone	(dk)red	(dp)red	(dp)red purple
18	사진 배색	24	색종이배색	Tone in Tone	(v)red	(v)reddish orange	(v)red purple

사용되는 언어의 분류’에서 변별 경향이 높은 척도 중에서 조합한 배색의 이미지와 배색 기법의 특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척도를 선정했다. 감성 형용사 척도 11개, 감각형용사 척도 4개, 총15개 의미척도(표 3)를 평정 항목으로 하여 평가용지를 작성 했다.

2.1.3. 실험 조사방법

총 24장의 배색견본을 피험자에 랜덤(Random)으로 제시하여 본 실험을 위해 작성한 평가용지에 평가를 받았다. 피험자는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교 대학생 10명이다.

2.1.4.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엑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SD법을 통하여 얻은 총 24개의 배색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미지프로필을 작성하고 평균치,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구했다. 또한 총 24개의 배색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몇 개의 공통요소로 정리하여 분석하기 위해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부하

량과 요인득점도 구했다.

3. 연구 결과

3.1. 톤 인 톤에 근거한 배색과 톤 온 톤에 근거한 배색의 인상 분석

총 24개의 배색에 대한 인상 평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구하기 위해 요인분석(Varimax회전)을 하였으며 요인부하량과 요인득점을 구했다. 요인부하량의 결과는 표 3에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과 표 3의 요인부하량을 이용하여 15개의 의미 척도를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인1은 좋다-싫다, 아름답다-아름답지 않다, 호감이 간다-호감이 가지 않는다, 조화-부조화, 안정-불안정 척도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높으며 기여율은 45.73%이다. 요인2는 맑다-탁하다, 칙칙하다-선명하다, 어린이답다-어른답다, 수수한-화려한 척도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높으며 기여율은 23.69%이다. 요인3은 강하다-약하다, 뻣뻣하다-부드럽다, 가볍다-무겁다, 희미하다-뚜렷하다, 격하다-조용하다 척도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높으며 기여율은 15.77%이다.

표 3. Varimax 회전후의 요인부하량

요인	평정 항목	요인부하량 : 회전후 (Varimax 법)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좋다 - 싫다	0.934	-0.146	-0.249	-0.113
	아름답다-아름답지않다	0.913	0.230	-0.225	-0.110
	호감이 간다-호감이 가지않는다	0.902	-0.072	-0.195	-0.263
	조화-부조화	0.890	-0.194	-0.217	0.177
	안정-불안정	0.812	-0.415	0.029	0.043
요인 2	맑다-탁하다	0.217	0.926	-0.187	-0.149
	칙칙하다-선명하다	0.182	-0.917	-0.293	-0.123
	어린이답다-어른답다	-0.360	0.847	-0.205	-0.067
	수수한-화려한	0.241	-0.806	-0.413	-0.229
요인 3	강하다-약하다	-0.277	0.151	0.931	0.100
	뻣뻣하다-부드럽다	-0.156	-0.140	0.854	-0.416
	가볍다-무겁다	0.054	0.536	-0.819	-0.079
	희미하다-뚜렷하다	0.211	-0.552	-0.748	0.098
	격하다-온화하다	-0.465	0.448	0.700	0.228
요인 4	따뜻하다-차갑다	-0.124	-0.008	-0.058	0.959
	고유치	6.860	3.554	2.366	1.288
	기여율 (%)	45.73%	23.69%	15.77%	8.59%
	누적기여율 (%)	45.73%	69.43%	85.20%	93.79%

요인4는 따뜻하다-차갑다 척도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높으며 기여율은 8.59%이다. 요인1부터 요인4까지의 누적기여율은 약 94%이다. 4개의 요인에 대하여 요인 득점을 그래프 한 결과를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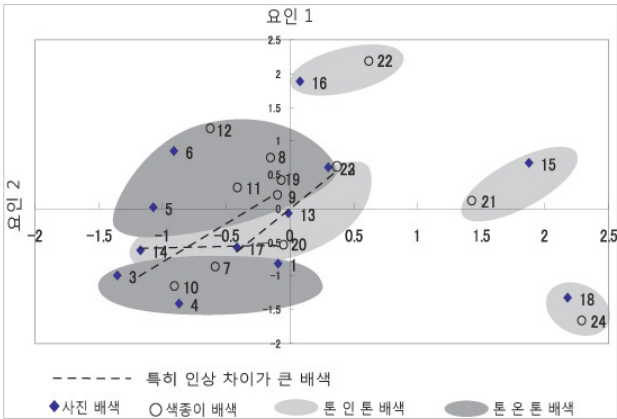


그림 2. 요인1 × 요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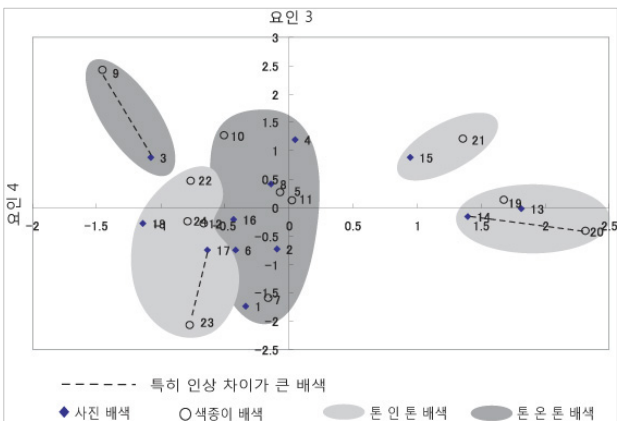


그림 3. 요인3 × 요인4

그림 2에서 X축은 요인1, Y축은 요인2로 표시한다. 그림 2에서 X, Y축의 좌표 상에서 톤 인 톤에 근거한 배색과 톤 온 톤에 근거한 배색은 각 무리를 이루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톤 인 톤 배색은 중심을 향하여 분포하는 반면 중심으로부터 떨어져서도 분포한다. 즉, 톤 인 톤 배색은 분산하여 위치한다. 한편, 톤 온 톤 배색은 대부분 중심을 향하여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분포한다.

그림 3에서 X축은 요인3, Y축은 요인4로 표시한다. 그림 3에서 X, Y축의 좌표 상에 톤 인 톤에 근거한 배색과 톤 온 톤에 근거한 배색은 그림 2처럼 각 무리를 이루어 분포한다. 톤 인 톤 배색은 X축의 정의 방향을 향하여 분포하기도 하며 X축의 부의 방향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분포한다. 즉, 톤 인 톤 배색은 분산하

여 위치한다. 한편, 톤 온 톤 배색은 대부분 중심을 향하여 두 개의 그룹으로 분포한다. 그림 2와 그림 3에 의해 톤 인 톤 배색에 근거한 배색과 톤 온 톤 배색에 근거한 배색은 다른 인상으로 평가되었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배색기법 그 자체가 배색의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톤 온 톤 배색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분포하는 이유로는 색상과 다른 요소가 작용한 가능성이 생각되며 톤 인 톤 배색이 분산하여 분포하는 이유로는 톤에 의한 영향 때문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배색건본 18번과 24번은 Vivid tone에 근거한 배색이며 배색건본 16번과 22번은 Dark tone에 근거한 배색이다. 그림 3에서 배색건본 14번-20번, 13번-19번은 Pale tone에 근거한 배색이며 배색건본 15번-21번은 Light tone에 근거한 배색이다. 그림 2분석과 표 3에 근거하여 요인1에 대해 상관관계가 높은 평정항목을 조사한 결과, 요인1은 ‘좋다-싫다’가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X축의 정의 방향으로 득점된 톤 인 톤에 근거한 배색들은 전체적으로 ‘싫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되며 특히 X축의 정의 방향으로 높게 득점된 배색건본 18번, 24번, 15번은 ‘매우 싫다’라고 평가되었다고 생각된다. 배색건본 18번은 톤 인 톤 배색기법을 이용한 사진 배색으로 그림 4에 나타내며 배색건본 24번은 18번에 거의 동일하게 작성한 색종이 배색으로 그림 5에 나타낸다. 배색건본 15번은 톤 인 톤 배색기법을 이용한 사진 배색으로 그림 6에 나타낸다.



그림 4. 배색건본 18



그림 5. 배색건본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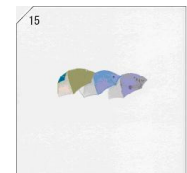


그림 6. 배색건본 15

X축의 부의 방향에 득점된 톤 온 톤 배색은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되었지만 X축의 부의 방향에서 정의 방향에서처럼 높게 득점된 배색이 없는 것으로 ‘매우 좋다’라고 평가 받은 배색은 없다고 생각된다. 톤 온 톤 배색을 근거로 한 배색이 톤 인 톤 배색을 근거로 한 배색이 보다 비교적 ‘좋다’라고 평가를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2의 분석과 표 3에 근거하여 요인2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은 평정항목 조사한 결과, 요인2는 ‘어린 이답다-어른답다’가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Y

축 정의 방향으로 득점된 배색은 전체적으로 어른스러운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배색건본 22번은 어른다운 인상으로 매우 높게 평가 되었으며 그림 7에 나타낸다. Y축의 부의 방향으로 득점된 배색은 전체적으로 어린이다운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배색건본 24번은 어린이다운 인상에 높게 평가 되었으며 그림 8에 나타낸다.



그림 7. 배색건본 22



그림 8. 배색건본 24

Dark tone에 근거한 톤 인 톤 배색과 Light grayish tone, Dark tone, Dark grayish tone의 톤 온 톤 배색은 어른다운 인상에 준다고 생각되며 Pale tone과 Vivid tone에 근거한 톤 인 톤 배색과 Pale tone, Light tone, Vivid tone의 톤 온 톤 배색은 어린이다운 인상을 준다고 생각된다. ‘어린이답다-어른답다’ 이미지에는 톤이 관여할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그림 3의 분석과 표 3에 근거하여 요인3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은 평정항목을 조사한 결과 요인3은 ‘강하다-약하다’가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X축의 정의 방향으로 득점된 Pale tone과 Light tone 에 근거한 톤 인 톤 배색은 전체적으로 ‘약하다’로 평가 되었으며 특히 X축의 정의 방향으로 높게 득점된 배색건본 20번은 매우 약한 이미지로 평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배색건본 20번은 톤 인 톤 배색기법을 이용한 색종이 배색이며 그림 9에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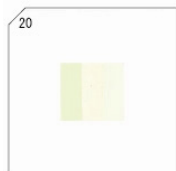


그림 9. 배색건본 20

X축의 부의 방향에 비교적 높게 득점된 Vivid tone과 Dark tone에 근거한 톤 인 톤 배색은 전체적으로 강한 인상으로 평가 되었다. 그리고 중심으로 향하여 분포하고 있는 톤 온 톤에 근거한 배색은 ‘강하다-약하다’에 대하여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강하다-약하다’라는 인상에는 톤이 관여하는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그림 3의 분석과 표 3에 근거하여 요인4에 대해 상관관계가 높은 평정항목을 조사한 결과, 요인4는 ‘따뜻하다-차갑다’가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Y축의 정의 방향으로 득점된 파랑 등 한색계열의 색상으로 조합된 배색은 전체적으로 차가운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며 특히 Y축의 정의 방향으로 가장 높게 득점된 배색건본 9번은 매우 차가운 이미지를 받았다고 생각되며 그림 10에 나타낸다. Y축의 부의 방향으로 분포한 빨강과 자주의 난색계열 색상으로 조합한 배색은 따뜻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특히 Y축의 부의 방향으로 높게 득점된 배색건본 23번은 매우 따뜻한 이미지를 받았다고 생각되며 그림 11에 나타낸다. 요인4의 ‘따뜻하다-차갑다’에는 색상이 관여할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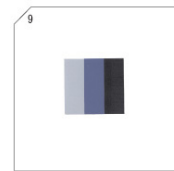


그림 10. 배색건본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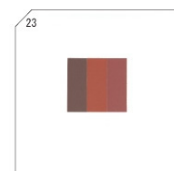


그림 11. 배색건본 23

3.2. 색표를 이용한 배색 인상과 그 배색에 기초한 제품의 배색 인상 분석 결과

표 2를 참고로 하여 그림 2와 그림 3에서 제품의 사진 배색과 동등한 색표 배색의 인상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프 상에서 서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유사한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배색건본 3번과 9번, 17번과 23번, 14번과 20번 배색은 매우 멀리 떨어져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색의 인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배색에 대한 인상 비교, 분석을 위해 이미지 프로필을 이용한다.

배색건본 3번과 9번의 이미지 프로필은 그림 14에 나타낸다. 배색건본 3번은 톤 온 톤 배색기법을 이용한 사진 배색으로 그림 12에 나타내며 배색건본9번은 배색건본 3번과 동일하게 작성한 색종이배색으로 그림 13에 나타낸다. 그림 14에 의하면 [조화-부조화] [따뜻하다-차갑다] [안정-불안정][격하다-온화하다][가볍다-무겁다][칙칙하다-선명하다][맑다-탁하다][수수하다-화려하다] 척도의 평가에 큰 차가 보이며 매우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배색의 인상에 차가 있는 원인으로 일본 전통 의상인 키모노라는 의복이 가지

고 있는 고유 특성이 배색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그림 12. 배색건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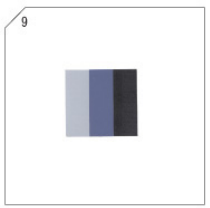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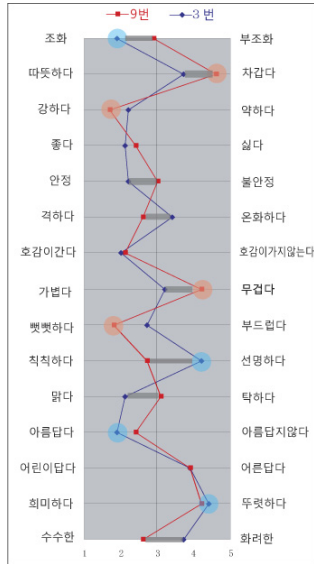


그림 13. 배색건본 9

그림 14. 배색건본 3번과 9번의 이미지 프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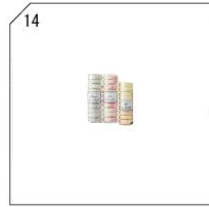


그림 18. 배색건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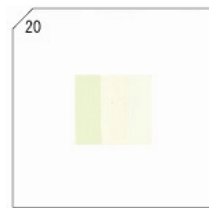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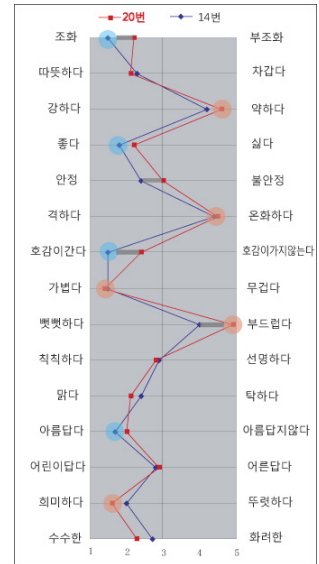


그림 19. 배색건본 20

그림 20. 배색건본 14번과 20번의 이미지 프로파일



그림 15. 배색건본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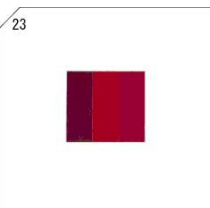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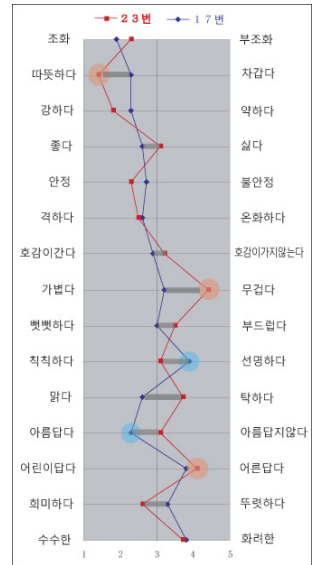


그림 16. 배색건본 23

그림 17. 배색건본 17번과 23번의 이미지 프로파일

배색건본 17번과 23번의 이미지 프로파일은 그림 17에 나타난다. 배색건본17번은 톤 인 톤 배색기법을 이용한 사진배색으로 그림 15에 나타난다. 배색건본 23번은 17번과 동일하게 작성한 색종이 배색이며 그림 16에 나타난다. 그림 17에 의하면 [따뜻하다-차갑다][좋다-싫다][무겁다-가볍다][뽀뽀하다-부드럽다][탁하다-맑다][칙칙하다-선명하다][아름답다-아름답지않다][희미하다-뚜렷하다] 척도의 평가에 크게 차가 보이며

매우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배색의 인상에 차가 큰 원인으로 매니큐어 병이 가진 재질감이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배색건본 14번과 20번의 이미지 프로파일은 그림 20에 나타난다. 배색건본 14번은 톤 인 톤 배색기법을 이용한 사진배색이며 그림 18에 나타난다. 배색건본 20번은 배색 건본 14번과 동등하게 작성한 색종이 배색으로 그림 19에 나타난다. 그림 20에 의하면 [조화-부조화][안정-불안정][호감이간다-호감이가지않는다][뽀뽀하다-부드럽다] 척도의 평가에 큰 차이가 보이며 매우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배색 인상에 차가 있는 원인으로 비누의 형태나 재질감 등이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색표를 이용한 배색 인상과 그 배색에 기초한 제품의 배색 인상은 제품의 고유특성, 재질감, 형태 등이 두드러질 경우 배색인상에 큰 변화가 있음을 생각 할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 톤 온 톤 배색에 근거한 배색과 톤 인 톤 배색에 근거한 배색의 인상 평가를 통하여 배색기법에 의해 배색의 인상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색상이나 색조처럼 배색기법이나 배색형식이 배색의 감성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배색

시, 배색기법이나 배색 형식을 색채조화의 원리가 아닌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활용해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톤 온 톤 배색기법을 활용하여 배색을 할 경우 색상과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는 강경자, 정복남, 정수진(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톤 온 톤에 근거한 배색은 톤이 인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 결과는 임지영(2007)의 결과와 유사하다.

제품의 사진배색과 거의 동일한 색종이 배색의 인상을 비교하는 것으로 색표를 이용한 배색과 그 배색에 근거한 제품의 배색인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품의 고유 특성이 강하거나 형태, 재질감이 두드러질 경우 배색의 이미지는 크게 변화하는 것도 확인했다.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 작업 시 색표 배색의 이미지와 제품의 형태나 재질감의 이미지 또한 고려해야한다고 생각된다.

24개의 배색에 관하여 SD법을 이용한 실험을 행하여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요인4개를 얻었다. 요인1은 ‘좋다-싫다’이며 톤 온 톤에 근거한 배색은 전체적으로 싫다고 평가되며 톤 온 톤에 근거한 배색은 전체적으로 좋다고 평가되었다. 톤 온 톤 배색을 근거로 한 배색이 톤 온 톤 배색을 활용할 경우 보다 비교적 ‘좋다’라고 평가 받을 경향이 높다고 생각된다. 요인2는 ‘어린답다-어른답다’이며 Dark tone에 근거한 톤 온 톤 배색과 Light grayish tone, Dark tone, Dark grayish tone의 톤 온 톤 배색은 어른다운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Pale tone과 Vivid tone에 근거한 톤 온 톤 배색과 Pale tone, Light tone, Vivid tone의 톤 온 톤 배색은 어린다운 인상을 준다고 생각된다. ‘어린답다-어른답다’의 이미지에는 톤이 관여하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요인3은 ‘강하다-약하다’이며 Pale tone, Light tone에 근거한 톤 온 톤 배색은 전체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되었다. Vivid tone, Dark tone에 근거한 톤 온 톤 배색은 전체적으로 강하다고 평가되었다. ‘강하다-약하다’의 이미지에는 톤이 관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요인4는 ‘따뜻하다-차갑다’이며 한색계의 색상으로 조합된 배색은 전체적으로 차가운 이미지를 나타내며 빨강이나 자주 등 난색계의 색상으로 조합된 배색은 따뜻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따뜻하다-차갑다’의 이미지에는 색상이 관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24개의 배색에 관한 분석 내용은 배색이미지 표현 시 활용할 수 있으며 Kobayashi(1981)의 결과처럼 색채이

미지에는 색상과 톤이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색채조화의 형식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배색기법이 배색의 감성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범위를 확대하여 자주 이용되는 다양한 배색형식(예: 동일색상, 유사색조 등) 그 자체에 대한 감성효과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배색의 이미지와 관련시키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배색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경자, 정복남, 정수진(2005). 치마, 저고리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이미지 지각. (2)7, *한국의상디자인학 회지*, 39-50.
- 강경자, 최수경(2005). 배색방법이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6)13, *복식문화연구*, 977-989.
- 성남숙, 최수경(2009). 동일색조코디네이션에 따른 넥타이의 감성이미지와 상호작용효과—스트라이프 패턴의 1:2:3면적 비 변화를 중심으로— (1)12, *감성과학학회*, 65-76.
- 임지영(2007). 컬러코디네이션 기법이 남성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8)31, *한국의류학회지*, 1297-1309.
- Kobayashi S.(1981).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6, 93-107.
- 伊藤久美子(2004).同一色相内の二色配色の感情効果, *日本色彩學會誌*,(1)28, 3-15.
- 伊藤久美子, 大山正,(2005).異色相間の二色配色の感情効果, *日本色彩學會誌*,(4)29, 291-302.
- 流行色 No.377.(1988). 財団法人 日本ファッション協會 流行色情報センター.
- 福田邦夫(1985). *色彩調和の成立事情* (財)日本色彩研究所編.
- 千千岩英彰 (2001). *色彩學概説*, 東京大學出版會,
- 원고접수 : 09.09.13
수정접수 : 10.06.04
게재확정 : 10.06.16